

1970년대에 펼쳐진 전위성 혹은 파열음은

현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오히려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실패함으로써 예술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예술의 전위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



17

『선데이서울』과 유신 시대의 대중

독재권력과 대중의 날육망

『선데이서울』은 지금까지도 선정적 대중잡지의 대명사로 통한다. 무엇이든 『선데이서울』에 실리기만 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저급과 허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물며 『선데이서울』이 전거(典據)가 되기라도 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단박에 품위가 떨어진다. 1970년대 이후 주간지 자체가 황색 언론으로 몰리게 된 것도 『선데이서울』의 공이

크다. 선정·음란·외설을 지나 쇼킹과 엽기까지, 대중의 온갖 하위문화 코드가 『선데이서울』이란 다섯 글자 안에 응축되어 있다. 그런데 『선데이서울』이 대중잡지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 독자의 열망이 이 한 권의 주간지에 모두 담겼음을 뜻하는 게 아닐까. 한 분야의 정수가 되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주간지 전성시대

한국의 주간지는 4·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대중적 호응이 대단치 않았을 뿐 아니라 군사 정부의 언론 정화를 거치며 일순간에 사라진 전사가 있다. 그러나 1964년 『주간한국』은 주간지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한국일보사 창업주 장기영과 박정희의 각별한 관계에서 태어난 『주간한국』은 신문에 다른 매체 경영을 허용한 특혜이자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당근책이었다.¹ 당근과 채찍을 함께 받은 신문사들은 애초 『주간한국』을 제외하고는 주간지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1968년 7월 합의가 해소되자 앞다퉈 주간지 발행을 시작했다. 8월 중앙일보사가 『주간중앙』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신문사의 『선데이서울』, 조선일보사의 『주간조선』, 경향신문사의 『주간경향』, 그리고 다시 한국일보사에서 『주간여성』 등을 쏟아냈다. 전국의 각급 언론사가 주간지를 발행함으로써 비야흐로 1970년대는 주간지의 시대로 펼쳐졌다. 각 주간지가 각축한 결과 『선데이서울』은 단연 최고의

위치에 올랐으며, 『주간경향』과 『주간여성』이 『선데이서울』의 아성에 도전하는 지형이 만들어졌다.

『선데이서울』은 대중오락잡지를 표방한 『주간한국』보다 더 철두철미 오락성에 초점을 맞췄다. 『선데이서울』은 사치와 허영과 모방은 무성해도 진짜 멋은 시들고 있다고 판단하며 “황량한 사회에 윤기를 돌리자면 없었던 멋을 되찾고 새로운 멋을 발굴해야 한다”²라고 강조한다. 그 무엇보다 오락성 위주의 잡지임을 강하게 내세웠던 것이다. 『선데이서울』이 애초부터 보도성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인쇄시설의 한계 때문에 비교적 시차가 드러나지 않고 당장 쓰기 쉬운 기사들이 전면에 배치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치정이나 스캔들, 가십성 성 문제 등이 『선데이서울』의 핵심 내용으로 등장하게 된다. 게다가 본지인 『한국일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신문사에 안겨다주면서 『선데이서울』의 편집 방향은 굳어졌다.³ 이 같은 편집 시스템은 『주간경향』과 『주간여성』도 다르지 않았다.⁴

이 때문에 주간지는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대중오락잡지를 표방한 주간지는 곧장 음란·외설 시비에 시달렸다. 대학생들은 주간지를 불태우며 불매운동을 펼쳤고 국가의 검열기구는 실질적 통제력을 발휘했다. 문공부와 검찰은 ‘음란성 심의 기준’으로 ‘나체, 성교, 부도덕한 성행위의 묘사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내용’을 첫째 항목에 올려놓았다. 그럼에도 온갖 성적 수치와 흥분으로 점철된 주간지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는 구세대 잡지라 할 수 있는 월간지 『아리랑』과 『인기』가 1969년에 기소된 것과 대비된



『선데이서울』로 대표되는 1970년대의 대중잡지들은 성적 욕망과 환상을 과감하게 담아내면서도 보수적 도덕관을 전파하는 이중성을 띠었다. 사진은 영인본으로 남은 『선데이서울』의 다채로운 표지와 화보.

다. 언론통제를 군말 없이 수용한 신문사가 발행한 주간지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간지는 선정성의 한계치를 시험하며 1970년대 대중의 정서를 가장 정밀하게 대변하는 매체로서 이 시기를 가로지른다.

잡지란 읽을거리가 가득 쌓인 텍스트의 보고(寶庫)다. 신문과 비교해 잡지는 양과 깊이에서 훨씬 요긴한 읽을거리를 담고 있으며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사를 생산한다. 지식인을 독자로 둔 월간지는 주간지보다 훨씬 수준 높은 정보를 담고 있었으며, 월간지로 해소되지 않는 지적 욕구는 계간지를 통해 새로운 담론으로 이어진다. 1960년대 말 등장한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이 비평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계간지가 지니는 양적 두터움이 토대가 된 덕분이다. 1980년대 무크지가 시대의 억압을 견딘 것도 마찬가지로 매체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잡지는 글을 신는 매체이면서 그 물질적 근거를 통해 담론이 모여드는 사상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태동한 주간지는 달랐다. 대중의 선택을 받은 『선데이서울』 같은 주간지는 월간지나 계간지가 담보한 고담준론은 커녕 한 번 읽고 버려도 무방한 기사, 사상의 아카이브가 될 수 없는 통속적 글로만 채워져 있다. 대중이 바라는 것이 주간지 속으로 빨려 들어 간다. 그래서 주간지에는 심오한 사상을 걸러낸 대중의 다양한 욕망이 혼란스럽게 뒤섞인다. 대중은 주간지가 그려내는 값싼 판타지를 소비하며 일상에서는 허름한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에 안도하기도 한다. 1970년대의 주

간지는 '선데이'라는 기호가 가져다주는 장밋빛 희망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희망이 대중문화의 핵심을 만들어냈다. 주간지는 심각한 현실이 아닌, 현실 속에서 발견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이야기함으로써 대중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간지는 욕망의 차원에서 대중의 정체성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매체였다. 이미 화보가 다 뜯겨 나간 『선데이서울』을 문서고에서 넘겨보는 이유는 그 속에서 1970년대를 살아온 대중의 정체와 욕망, 희망으로서의 현실 그 자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폐와 순결이 뒤섞인 1970년대의 한 풍경

통제와 허용의 경계선에 있던 대중은 『선데이서울』을 통해 어떤 욕망을 확인하고자 했을까. 누천년 이어져온 가난의 굴레를 벗고 먹고살 만해지면서 사람들은 먹는 것만큼이나 원초적인 욕구의 문제로 향하고 있었다. 한국에도 대중사회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산업화의 성과를 나눠 가지며 다양한 물질적·정신적 여유를 가지려 했다. 일요일 혹은 '선데이'의 유흥은 산업화가 선사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런데 '선데이'의 낭만을 꿈꾸며 만끽할 수 있었던 대상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휴일의 유흥을 어떻게 즐겨야 참다운 대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곤혹감 속에서 『선데이서울』이 던진 대답이 바로 성(性)이었다. 전후(戰後)부터 1960년대

까지를 아우르던 '명랑'의 대중성과 이데올로기가 '성'이라는 자극적 대상에 의해 소멸된 것이다."

'3S 정책'이 5공화국의 전유물 같지만, 실은 1970년대 『선데이서울』에서도 충실히 활용된 전략이다. 스포츠와 영화 그리고 성을 빼놓고 이 잡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배우, 탤런트, 가수, 스포츠 스타의 자잘한 동정이 과장된 호기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 잡지의 지면을 장식했다. 연예계에 대한 집요한 관심은 지금의 수준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들 셀러브리티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성을 매개로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소소한 연예계 이야기는 간통과 불륜의 드라마로 이어지면서 화제의 정점에 다다른다. 간통 기사는 당대 최고의 특종으로 몇 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파헤쳐지고, 누가 누구를 만났다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안 봐도 뻔하다는 식의 논조로 서술된다. 여성을 남성의 성적 소비 대상으로 만드는 관음증적 시선은⁵ 연예인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즉 낮 시간이 지루한 주부, 고고클럽을 드나드는 여대생과 여공 그리고 전문직이랄 수 있는 마담과 호스티스에게까지 미친다. 주간지의 시선을 따라가보면, 1970년대 대중의 새로움이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분출되고 소비되는 성에 의해 증명되는 것 같다.

■ 1950년대 중반 등장한 명랑성에 대한 요구는 대중성에 부합하며 자극화로 이어진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명랑'의 분위기는 군사정권의 통제하에서 지배적 감정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성격이 강해진다. 명랑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증대된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불안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상의 모순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았음이 분명하다. 이정숙(2011), 「1970년대 공복주의 문화적 지형도」, 『상위학보』 제32집, 2011년 6월, 78쪽.

“섹스’라는 낱말이 현대인의 일상용어”가 된 만큼 『선데이서울』은 성으로 얽힌 대중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다. 술집 종업원 중에 숫처녀가 드물다거나⁶ 여성 전용 다방에 동성애가 난무한다는⁷ ‘아찔한’ 현장은 『선데이서울』이 발견한 1970년대식 풍속이다. 그 중에서도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성적 일탈은 대중의 호기심을 가장 현란하게 자극했다. 이웃사촌에게 남편을 빌려줬다 사달이 났다는 유의 사건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쇼킹해서가 아니라 성적 호기심이 대중의 일상 속에서 널리 유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중 절정은 형수와 시동생의 ‘분리불가능’ 사건일 것이다.⁸ 물론 현장을 들기자 몸이 경직된 채로 병원으로 실려 왔다는 소문이 광우 일대에 퍼지자 경찰 추산 3만~4만의 군중이 삼시간에 운집,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소문에 등장한 병원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멀리는 목포, 여수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과일 행상이 등장할 정도로 일대가 이수라장이 되자 경찰은 구경꾼 중 20명의 대표를 선발해 병원을 살살이 뒤졌다. 경찰은 모든 게 헛소문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사람들은 통금 시간까지 해산하지 않았고 다음 날에도 다시 모였다고 한다. 이 소동은 1970년대 대중이 성이라는 대상에 얼마나 왕성하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준다. 『선데이서울』은 이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중의 선정적 기호(嗜好)를 선명하게 증언했다.

성에 관해서는 정부 역시 윤리위원회를 통해 음란성이라는 기준을 들어 검열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성적 수치심’과 ‘성적 흥분’이란 말이 여기서 시작되거나 그 기준은 형

편없이 자의적이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에 대한 단속 기준이 “속옷이 비치는 칠칠치 못한 여자”, “경찰이 보기 민망스러운 아가씨” 등 주관적 판단을 포함하는 상황에서⁹ 통제의 합리성을 찾기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선데이서울』 화보는 대중의 선택을 받았고, 통제권력 또한 이를 적당한 선에서 존중해주었다. 이는 주간지의 이중적 태도가 통제권력과 적절히 호응한 덕분이다. 『선데이서울』의 ‘쇼킹화제’, ‘놀랐지 정보’만 보면 한국 사회는 온통 성 해방에 도취된 듯 보인다.

그런데 『선데이서울』은 성적 문란의 반대급부로서 현모양처 여성상을 제안하기도 한다. 『선데이서울』은 성에 한없이 개방적인 여성상을 그리면서도 여기에 현모양처 여성을 병치함으로써 욕망과 검열의 극단을 적절히 얼버무려놓는다. 타락한 가정주부와 청춘 남녀에게는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가라 타이르고, 호스티스와 마담에게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실컷 파헤치고 나서는 느닷없이 건실한 직업의식을 가지라 요구한다.

이 같은 성적 울바름은 『선데이서울』이 표방한 선정성과 모순되었으나 성적 문란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포즈였다. 『선데이서울』은 이 아이러니를 ‘딸자랑’ 시리즈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포장했다. 대학교수에서 사업가, 예술인, 정치인에 이르는 사회 저명인사의 딸을 소개하는 ‘딸자랑’ 시리즈의 화보가 비키니 화보나 거리의 관음적 ‘도촬’과 나란히 놓이는 장면은 퇴폐와 순결이 혼재된 1970년대의 한 풍경으로서 도드라져 보인다. 이는 『선데이서울』이 특별히 이끈 향락과 선정의 신세계가 아니다. 이른바 창녀이면서 동시에